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지역 창업생태계 활력 불어넣는다

### 전북벤처투자포럼 개최

수도권·지역 벤처투자사

엔젤투자자 20여명 참석

엔젤투자협회장 초청 강연도

지역 창업자들과 수도권 투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벤처투자포럼이 활성화되며, 지역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21일 전북도·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창조센터)는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민간투자사 창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벤처투자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도내 유망 창업기업을 소개하고 투자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는 수도권 및 지역 16개 벤처투자사와 20여명이 넘는 엔젤투자자가 참석하며 창업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엔젤투자자간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자금 지원과 경영 지도를 해주는 개인투자자를 뜻한다.

이날 포럼에 앞서 올해 5월에 결성될 전북도-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3개 투자사가 참여하는 1:1 투자상담 부스 운영과 유망 스타트업으로 케나프를 이용한 친환경 조사료 제조 기업인 (주)올빅(대표 하동욱), 반려전 치매



지난 21일 전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전북벤처투자포럼에 김관영 도지사외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단 솔루션 (주)케이비지(대표 최주영)의 기업 투자설명회(R)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어진 포럼에서는 벤처업계 대부라고 불리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이 참석해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고 회장은 하나로미디어를 창업한 후 SK텔레콤에 매각하고 한국엔젤투자협회를 만들어 활동했으며, 그가 주도한 테헤란로 고벤처포럼은 2013년부터 10년째 운영중으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중소벤처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국내 엔젤투자자를 교육 및 관리하며 중소벤처기업부 TMS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 이 TMS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까지 고 회장이 산회연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에서 고 회장은 "지방소멸 문제의 극복은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있다"면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을 통해 인재와 혁신 기업들이 나오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내 창업기업의 벤처투자와 TMS프로그램 선정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고 회장에게 당부했다. 또한, 김 지사는 "창업기업은 지역의 중요한 혁신자 원이다. 전북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예비유니콘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벤처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해 도내 투자 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재훈 기자

### 제13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 개최

## 화려한 퍼포먼스 관객들 '엄지척'

전국 미술꿈나무 12명 참가 무대 위에서 '매직쇼' 선사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지연맹(회장 김승곤)이 주최하고 전주시와 전주매일신문사가 후원한 '제13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가 지난 22일 오후 1~3시,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에서 열렸다. <화보 16면>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고자 매년 열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는 송미령 예원에 예술대학교 한지공간조형디자인학과 교수가 사회자로 참여했으며, 소경희 10대작 명예이사, 이희만 어울림국제예술축제협회 회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경연에 참가한 어린이·청소년 미술 꿈나무들은 김기량(경기 회계원고)군, 김승진(경기 파주 한빛중3)군, 김지원(서울 문정초5)동, 노유찬(대전 전자디자인고)군, 박시우(서울 거원초)군, 박현

례고)군, 이경근(김제 덕암정보고1)군, 이시우(서울 평화초)군, 이정원(서울 성덕고)군, 이주열(서울 천호초)군, 오성민(경기 용인 중3)군 등 총 12명이다.

이들은 각각 무대 위에 올라 공, 카드, 꽃 등을 이용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프로미술사 민준서씨의 축하무대도 이번 경연에 즐거움을 더했다.

이번 경연 대상의 영광은 오성민군에게 돌아갔다. 노유찬군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이경원군이 우수상, 박현군이 장려상, 김기량군이 인기상을 수상받았다. 특별상은 이경근군에게 돌아갔다.

김승곤 회장은 환영사에서 "13회째로 맞이하는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를 통해 평소 갈고닦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가는 잔치 한바탕이 되길 희망한다"며 "참가한 청소년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서 품새·격파 직접 보러가자'

내달 5~7일 '제1회 전주대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 전국 중고생 2329명 참석... 자유품새 종목 등 '주목'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오는 5월 5~7일 3일간 제1회 전주대 총장배 전국 태권도(품새·격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접수 마감 결과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2329명과 대한태권도협회 심판 및 관계자 150명, 전국 지도자 500명, 그리고 학부모 및 관람객을 포함해 4,000여 명의 인원이 전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전주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유한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태권도 실력을 직접 관찰할 기회가 생겼다.

특히 '태권 트로트 나태주'가 선보였던, 격파와 K-POP 음악이 결합한 절도 있는 태권도 동작을 기본으로 화려한 발차기 기술과, 아크로틱 동작을 중심으로 예술성과 창작성을 평가하

는 자유 품새 종목이 주목된다.

이숙경 학과장은 "세계 210개국 이상이 태권도 회원국이고, 약 8,000만 명의 세계 어린이와 성인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단순한 태권도 대회가 아닌, '세계인의 태권도' 전북 방문으로 세계태권도인이 꼭 방문하고 싶은 태권도 성지순례 관광코스로 관광마케팅과 지역 상품을 연계하는 브릿지 상품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3일간 대회가 진행되지만, 2024년에는 1주일간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고 이후 전북의 맛, 멋, 흥을 즐길 수 있는 전북을 대표하는 태권도 상품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은성 기자

### 전북대 교수 56명 시국성명

## "尹정부 친일 굴욕외교 반대"

전북대학교 교수 56명이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의 몰역사 인식과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친일 굴욕 외교를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지난 3·1절 추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통치가 마치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처럼 공표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언이라고 했다.

또한 이들은 3월 6일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금을 일본의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소위 '제3자 변제안'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오히려 강제징용이 없었다는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매국적 행위라고 했다.

특히, 3월 17일 후쿠자와 유키치가 세운 일본 국영의 중심인 게이오 대학에서 했던 연설에서 조선은 원래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 오키쿠라 텐신의 발언을 깊이 인용하며 찬란한 역사를 내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과정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교수 56명이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의 몰역사 인식과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친일 굴욕 외교를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전북대학교는 임진왜란을 극복했던 중심 지역이자 조선 말 국가가 누란지위에 처했을 때 동학농민혁명을 전개해 집강소의 설치라는 최초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전라북도의 중심대학이다.

또한 3·1운동 당시 한강 아남에서 가장 먼저 민세운동을 펼쳤고 4·19혁명 시기 전국의 대학 가운데 최초로 4·4시위를 전개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의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가 순국했던 장소다. /김은성 기자



#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음시의회

정음시의회 www.jcc.or.kr